축 사

한국불교는 전래 이후 민족과 함께하며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으며,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 헌신하는 호국불교의 지혜로운 보살행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러한 한국불교의 역사이기에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1980년 '10·27법난'은 가장 큰 오점이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교분리(政敎分離) 원칙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1980년 계엄체제하의 합동수사본부가 강압적으로 전국 사찰을 수색하고 스님들을 연행하는 등의 과오를 범한 것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한국불교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 불행하기 그지없는 미증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불교계는 끊임없이 법난의 진상을 밝히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07년에 이르러서야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하여 '10·27법난'이 '불교정화라는 목적 아래 특정 종단에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대표적인 국가권력 남용 사건'으로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특별법 제정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피해자 및 피해단체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의료지원금 지급, 기념행사, 기념관 건립 등의 업무 수행으로 조금이나마 법난의 아픔을 치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10·27법난'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지만, 지금까지의 위원회의 활동 성과와 노력들은 피해자와 피해종교단체에게 큰 위안이 되었으며 한국불교가 '10·27법난'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어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백서』는 지금까지의 위원회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라 할 수 있겠지만, 백서는 단순한 보고서를 넘어 '10·27법난'을 기억하고 후대에 계승하는 한국불교의 소중한 자료가 되어줄 것입니다. 위원회가 그동안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으로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소중한 원력과 성취를 발판 삼아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불교 본연의 모습을 다양하게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시대와 사회가 요청하는 종교적 책무를 다하여 우리 사회가 꿈과 희망이 넘치는 밝은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진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용과 배려는 화해와 상생을 이끌어내는 덕목입니다. 이와 같은 자비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까지 전달되어 보다 밝은 세상으로 거듭나기를 손모아 기원하며, '10·27법난' 피해자와 피해 종교단체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진해 나아갑시다.

2016. 6.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